



ChatGpt로 생성한 '국가 간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가운데 올라가는 방산ETF 인기'를 표현한 이미지.

## 방산주 열풍, ETF 시장까지 확산 대형·레버리지에 유럽형까지 가세

순자산 1조3000억 대형 ETF 등장  
소부장 중심 밸류체인 투자 확장  
한투, 유럽 방산 대장주 ETF 상장  
고평가 논란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  
군비 확대가 구조적 성장세 뒷받침

방산주 열풍이 힘입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투자 영역을 유럽·글로벌·소부장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순자산 1조3000억원 규모의 대형 상품이 등장했고, 레버리지·특화형 상품까지 더해지며 라인업이 한층 다양해졌다. 이달 말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신규 진입을 앞두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KRX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방산ETF 시장은 한화자산운용의 'PLUSK방산' (순자산 1조3151억원)을 필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K방산&우주' (3143억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1961억원) 등이 규모를 점차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자산운용이 내놓은 'KODEX K방산TOP 10레버리지'가 상장일 하루 만에 10.3%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ETF는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K방산 빅4' 기업에 160% 비중을 집중 배분하며 방산 섹터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겨냥하고 중이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국방비 증액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ETF 성장 배경으로 꼽는다. 특히 한화운용은 지난달 소재·부품·장비 업체에 집중하는 'K방산소부장 ETF'를 내놓으며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영역을 확장했다. K2 전자 변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SNT다이내믹스, K9 자주포 엔진을 공급하는 STX엔진 등도 포트폴리오에 포함됐다.

오는 23일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ACE 유럽방산TOP10'을 상장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해당 ETF는 라인메탈(Rheinmetall) 등 유럽 방산 대장주를 담는다. 남용수 한투운용ETF본부장은 "국내 ETF는 이미 다수 출시돼 차별화를 위해 유럽 방산 기업에 집중했다"며 "라인메탈은 독일 정부가 예산을 집중하고 공장 증설에 나서면서 유럽 내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EU 및 NATO 탄약 공동조달 계획 속에서 공급망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방산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 유럽의 '재무장(Re-armament) 계획'이 본격화되면 ETF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섹터가 될 것"이라며 "방산주는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유럽 재무장 전략의 핵심으로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원칙을 꼽았다. 이는 유럽 내에서 생산된 무기와 부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조달 기준으로, 역대 방위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 등 외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국방 조달 시 유럽산 부품을 최소 65% 이상 사용하고, 생산시설을 유럽 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내 공급망에 완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역대 중심의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방산주의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군비 확대라는 모멘텀이 멈추지 않는 한 ETF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코스콤,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선점

시장 직속 '디지털자산TF' 운영

코스콤이 향후 본격화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확보에 나섰다.

코스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KSDC ▲KRW365 ▲KOSWON ▲KORWON 등을 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업계 전반에서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코스콤 역시 시장 변화에 발맞춰 기술적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코스콤은 기존 미래사업부를 시장 직속 조직인 '디지털자산사업추진TF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 위상을 높이고, 전사적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확대된 TF는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PoC)을 추진하며 자본시장 결제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토큰증권 사업과 연계해 청약 및 유통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결제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관련 연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며 시장 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블록체인 관련 특허 1건을 추가 등록해 현재까지 총 4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코스콤은 지적재산권 확보와 기술 검증을 병행하며,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 도입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김완성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추진TF부 부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하게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코스콤은 자본시장 IT 선도 기업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는 시장 흐름에 맞춰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연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국내 역시 자본시장 결제에 최적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함으로써 결제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AI 기대감에 서학개미, '팔란티어' 집중

### 해외주식 Click

반도체 강세장에도 역베팅

지난주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주식을 사들였다. 반도체 지수 상승률에 역배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확대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 주(9월 9일~9월 15일까지) 서학개미들은 팔란티어를 1억 500만달러(약 1455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지난주 오라클이 깜짝 실적을 발표해 글로벌 AI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는 지난 달 12일 사상 최고가 190달러를 기록한 이후 급락해 횡보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달 18일 미국 공매도 리서치 기관 시트론 리서치가 팔란티어의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지적하자 하루만에 10% 급락했다. 지난 9일부터 상승 전환해 6거래일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매도 리포트로 주가가 하락했으나 팔란티어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며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 시대로의 트렌드 전환 국면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고 짚었다. 팔란티어는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미 육군과 향후 10년간 최대 100억달러(13조8000억원) 상당의 장기 계약을 체결해 미 국방산업의 핵심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약 9730만달러)와 엔비디아(약 5460만달러)에도 투심이 기울었다. 다만 ICE 반도체 지수 하루 변동률을 3배 역으로 추종하는 '디렉시온반도체베어 3X ETF'(SOXS)도 약 8500만달러 순매수되며 서학개미들의 투심이 엇갈린 것이 확인됐다.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의 연이은 호재가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단기 주가가 급등했을 때 통상 나오는 차익실현 매물을 경계한 모습이다. /최건우 기자 geon@

## 한국거래소, 탄소시장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미국 익스팬시브와 MOU 체결  
국내 탄소시장 개설·유동성 모색

한국거래소가 탄소시장 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탄소 크레딧 거래소 운영사인 미국의 익스팬시브(Xpansiv)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 크레딧 거래소는 탄소 감축 실적(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자발적 탄소 시장(VCM)이라고도 불린다. 익스팬시브의 경우, 세계 최대 탄소 크레딧 거래 플랫폼인 CBL을 운영 중이다. 탄소크레딧시장(CBL) 시장의 거래 종목을 기초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탄소크레딧 선물이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탄소시장 네트워크 확대, 한국기



(왼쪽부터)정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존 멜비 익스팬시브 최고경영자(CEO)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탄소시장 사업부문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래소와 CBL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탄소크레딧 시장 개설

시 해외 기관의 유동성을 국내로 공급해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 크레딧 수요 기업이 한국거래소의 플랫폼을 이용해 우수한 품질의 해외 탄소 크레딧을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정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한국거래소는 아시아 최고의 탄소 시장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탄소 크레딧 시장을 운영하는 익스팬시브와 다양한 측면에서 협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 멜비 익스팬시브 최고경영자(CEO)는 "기업 등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지원할 'KRX 탄소 크레딧 시장' 개설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신하은 기자

## 삼성증권, 연금잔고 22조... 1년 새 30% ↑

IRP 8조 돌파 등 고른 증가

삼성증권은 17일 연금저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더한 총 개인형 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22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총 개인형 연금 잔고는 지난해 말 17조1000억원대에서 올해 9월 11일 기준 22조2000억원으로 약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과 DC형, IRP 잔고는 각각 34.6%, 27.4%, 2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IRP 잔고는 8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40~50대 투자자의 개인형 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년말 기준 10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들 고객의 잔고는 2025년 9월 11일 기준 14조7000억원대로 약 34.8% 증가했다.

현재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별도의 연금센터를 신설,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3곳의 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해당 연금센터에서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이 전문화된 연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 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에만 약 200여 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신하은 기자